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와 여성 관련 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Female Readers' Reading
Behaviors and their Characteristic Features

김 선 남 (Kim, Sun-Nam)**

◁ 목 차 ▷

- | | |
|--------------------|------------------|
| 1. 서 론 | 4.3 '여성문제' 관련 도서 |
|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4.4 인기스타 관련 도서 |
| 3.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 | 4.5 모성 관련 도서 |
| 4. 여성 관련 도서 유형과 특성 | 5. 결 론 |
| 4.1 자기 계발 관련 도서 | <참고문헌> |
| 4.2 자녀교육 관련 도서 | |

< 초 목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요 도서 구매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여성의 독서행태를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여성 관련 도서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성 관련 도서 장르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계발 관련 도서, 여성문제 관련 도서, 자녀교육 관련 도서, 인기스타 관련 도서, 모성 관련 도서 등이다. 여성 관련 도서는 여성의 성공과 자아실현에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취향이나 취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일부 도서 장르는 자녀교육이나 가족 특히 모성을 부각시키는 소재를 통해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 가족 성원으로서 역할수행 방법 등을 담아 내고 있다. 여성 독자를 겨냥한 도서들은 한국 사회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여성 문제를 사회문제로 여론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要語: 여성독자, 여성 관련 도서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원광대학교 주산학술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sunkim@wonkwang.ac.kr)

접수일: 2010년 9월 4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addressed two major research issues. One was to review the reading behavior of female readers, the major book purchasers in Korea. The other was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 features of women-related books and their influences on Korean socie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Korean female readers bought 5 types of books much more than other books. Those books were related with self-development, gender issues, education for children, motherhood, and superwoman stories. It was found that these books provided women with a set of information useful for their success and self-development as well as specialized tastes and hobbies. Some books introduced invaluable practical methods of rearing successful children and functioning well as family member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especially motherhood.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it could be maintained that books targeting female readers made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bringing into attention a wide spectrum of female issues in Korean society.

Key words: female readers, feminine books

1. 서 론

한국광고공사(2006)에 의하면, 여성(6.6%)은 남성(3.0%)에 비하여 독서를 더 중요한 여가활용방법으로 채택하였다.¹⁾ 또 여성 상당수(72%)는 독서가 개인의 사회생활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²⁾

한국 출판계는 여성을 주요한 도서 구매자로 인식하고 있다. 교보문고의 북클럽 가입자(854만명) 중에서 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또 여성이 전체 도서의 60%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³⁾ 특히 여성 가운데 20-30대가 주요 도서 구매층으로 부각되었다. 인터파크의 총 도서 판매에서 20-30대의 여성구매자가 전체의 40.5%를 차지하였다. 교보문고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교보문고는 2008년 종합베스트셀러 100위권 내에 포함되었던 도서의 구매 현황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하였는데, 여성이 구매하였던 60.8%의 도서 가운데 20대가 전체의 43.13%, 30대가 전체의 29.87%를 차지한 바 있다. 20-30대 여성의 구매비중이 여성전체 구매비중의 약 73%를 차지하였다.⁴⁾

특히 20-30대 직장여성의 높은 도서 구매력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출판계는 이들을 최고의 고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들을 겨냥한 도서가 해마다 베스트셀러 목록 상단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⁵⁾

매스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가치관, 규범 등을 전수하는 문화전수 기능을 수행한다.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한 사회 일원

1) 권호영, 한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지출행태의 변화(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9.

2)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한국출판연구소, 2008), 118.

3) 『동아일보』, 2009년 6월 5일.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id=0002397738>>. (검색일자, 2009.11.20)

5) 김기태,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서울: 이채, 1999); 박찬익, “베스트셀러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1990년대 우리나라문예물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0); 이진산,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1990년대 출판물 특성에 관한 연구-국내소설단행본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며, 사회 역시 미디어를 통하여 통합과 결속을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변화가 일어난다.⁶⁾ 특히 도서는 다른 매스 미디어보다 강력한 문화전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의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책을 읽는 이유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서’(25.8%),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21.8%)로 나타났다.⁷⁾ 이는 여성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고, 특정 이슈에 대한 교양이나 전문지식을 쌓는데 있어서 도서매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성독자의 독서행태를 살펴보고, 이들 계층과 관련된 도서의 유형 및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여성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출판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와 이들 관련 도서장르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 여성 관련 도서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도별 베스트셀러 목록 분석 및 관련 기존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3.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

한국여성의 평일 독서시간은 전국민의 평일 독서시간이나 남성의 평일 독서시

6)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원론(서울: 범우사, 1994), 389.

7)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2008).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와 여성 관련 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간보다 더 길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1994년의 경우 여성의 독서시간은 56분으로 이는 전국민(54분), 남성(52분)보다 더 긴 것이었다. 2002년의 경우 여성의 독서시간은 34분으로, 이는 전국민(31분), 남성(27분)의 것보다 길었다.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여성의 독서시간은 31분으로 이는 전국민(29분), 남성(28분)보다 더 길었다(표 1 참조).

<표 1> 독서시간의 연도별 추이

(단위: 시간)

독서시간 변화추이(평일)	사례수(명)	전 체	성 별	
			남 성	여 성
2008년	1,000	29	28	31
2007년	1,000	33	33	34
2006년	1,000	37	36	37
2004년	1,000	37	34	40
2002년	1,200	31	27	34
1999년	1,500	37	35	39
1996년	1,200	38	34	41
1995년	1,200	37	35	39
1994년	1,200	54	52	56

※ 평균독서시간: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응답자까지 포함한 성인 1인당 평균 독서시간임.
출처: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2008, 2004, 2002, 1999, 1997)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재구성한 것임.

한국 여성독자가 남성독자보다 독서에 의미를 두는 행위는 그들이 독서를 중요한 여가활용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2004년의 경우 여성의 7.6%가 독서를 여가방법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전국민(5.6%), 남성(3.6%)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또 2006년에도 여성(6.6%)이 전국민(4.8%), 남성(3.0%)에 비하여 독서를 더 여가활용방법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여가활용방법

(단위: %)

여가활용방법	2001년	2004년			2006년		
	전체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TV 시청	-	23.6	19.6	27.7	25.5	19.6	31.5
PC(인터넷, 게임 등)	11.8	18.2	21.3	14.9	14.5	19.1	9.7
등산	5.7	7.7	8.8	6.5	8.8	10.4	7.2
독서	7.6	5.6	3.6	7.6	4.8	3.0	6.6
영화	8.9	4.6	4.9	4.4	4.9	3.9	5.8
음악감상	7.9	2.5	1.3	3.6	2.4	0.9	3.9
기타	58.1	37.8	40.5	35.3	39.1	43.1	35.2

출처: 한국광고공사(2006, 2004, 2001), 권호영(2007), 9에서 재인용.

한국 남성에 비하여 한국 여성의 독서량이 높은 현실은 직장인 비교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아이웰 콘텐츠에 의하면,⁸⁾ 20대 직장인의 경우 연평균 독서량과 도서구매량에서 남녀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 직장인의 독서량과 구매량은 각각 25권, 12권이었는데, 이는 남성의 8권, 7권에 비하여 더 많은 것이다.⁹⁾

인쿠르트 조사에서도 직장인들은 한달 평균 2.8권의 책을 읽고 있으며 한달 평균 3만 5천원의 도서구입비를 투자하였는데, 여성 직장인의 독서량이 남성 직장인의 독서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 직장인은 한달 평균 2.3권의 책을 읽었던 반면 여성 직장인은 3.9권의 책을 읽었다.¹⁰⁾

여성의 독서행태를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독서량은 점점 증가하였던 반면 판매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독서량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¹¹⁾ 최근 확대되는 여성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 여성 고학력자의 비율을 토대로 하여볼 때 향후 여성의 독서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8) <<http://www.iwellcontents.com>>. (검색일자, 2009.11.20)

9)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57.

10) 『서점신문』, 2009년 11월 12일.

11) 김미경, “직장여성의 독서실태에 대한 연구-수도권 지역 20대 여성의 독서의 환경요인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98), 94-95.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와 여성 관련 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편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동기는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것이다. 이는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여성의 독서 동기는 ‘새로운 지식 및 정보 습득’, ‘교양함양 및 인격형성’ 순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독서동기

(단위: %)

독서목적	1997년			1999년			2002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명)	600	300	300	1,500	751	749	1,200	604	596
새로운지식/정보 습득	48.0	58.1	37.9	36.5	41.0	31.9	29.9	35.9	23.8
교양함양/인격형성	24.7	15.9	33.4	20.3	16.6	24.0	16.8	15.1	18.6
직무/업무상 필요	3.1	5.9	0.4	2.5	3.6	1.3	1.8	2.3	1.2
독서가 즐겁고 습관화됨	7.9	6.3	9.4	9.1	7.6	10.7	6.8	4.6	8.9
대화를 잘하기 위해	3.0	4.0	2.0	3.3	3.3	3.3	3.2	3.5	2.9
시간을 보내기 위해	9.2	7.0	11.3	13.5	12.4	14.7	7.8	8.3	7.2
기타	4.2	2.8	5.6	1.2	1.9	0.5	0.6	0.7	0.5
마음의 위로/평안	-	-	-				11.8	7.1	16.6
독서 안함	-	-	-	13.5	13.6	13.5	21.4	22.5	20.3

독서목적	2004년			2008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사례수(명)	1,000	500	500	1,000	503	497
새로운지식/정보 습득	30.4	32.4	28.4	27.9	30.0	25.8
교양함양/인격형성	18.6	15.8	21.4	19.3	16.8	21.8
직무/업무상 필요	4.9	8.4	1.6	5.1	7.5	2.7
독서가 즐겁고 습관화됨	4.7	3.6	5.7	5.8	4.1	7.5
대화를 잘하기 위해	4.0	4.0	4.1	2.4	2.3	2.4
시간을 보내기 위해	9.9	10.5	9.3	9.7	8.7	10.6
기타	0.3	0.1	0.4	0.4	0.5	0.3
마음의 위로/평안	12.5	8.6	16.4	9.9	7.0	12.8
독서 안함	14.6	16.7	12.6	19.6	23.1	16.2

출처: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2008, 2004, 2002, 1999, 1997)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재구성한 것임.

한국 여성독자가 가장 선호하는 도서는 문학도서(46.1%)이었으며, 그 뒤를 실용취미도서(24.2%), 문학외 교양도서(12.3%) 등이 이었다. 또 한국 여성독자가 가장 많이 구입하는 도서는 문학도서(57.3%)이었으며, 그 뒤를 실용취미도서(24.5%), 문학외 교양도서(13.0%)등이 이었다.

여성독자의 선호 및 구매 도서 유형은 남성의 것과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한국 남성은 문학도서(31.0%)를 가장 선호하였지만, 그 뒤를 문학외 교양도서(21.3%), 실용취미도서(18.8%)가 이었다. 또 구매 도서에서도, 한국 남성은 문학도서(35.9%), 문학외 교양도서(34.1%), 실용취미도서(24.4%)로 나타났다(표 4 참조).남녀가 모두 문학도서에 해당하는 장르를 우선적으로는 선호하였지만, 후 순위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였다.

<표 4> 선호도서와 구매도서

(단위: %)

도서분야	전체	선호		전체	구입	
		성별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례수(명)	1000	503	497	455	205	250
문학도서	38.7	31.0	46.1	47.4	35.9	57.3
문학외교양도서	16.8	21.3	12.3	22.7	34.1	13.0
실용/취미도서	21.5	18.8	24.2	24.5	24.4	24.5
만화/무협지	5.6	8.6	2.8	2.9	3.7	2.2
기타	1.2	1.1	1.2	2.5	1.9	3.0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16.3	19.3	13.4	-	-	-

출처: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2008)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재구성한 것임.

한국 여성독자의 문학도서 선호는 기존의 직장여성의 선호도서 조사결과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즉 30개의 주요 기업체의 사내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자사원은 업무 관련 전문 도서를, 반면 여자 사원들은 문학 및 교양서를 더 많이 대출하였다.¹²⁾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의 직장여성은

12) 『도서신문』, 1994년 7월18일, 김미경(1998), 56에서 재인용.

‘소설과 수필’ 등 가벼운 책을 선호하였던 반면에 20-27세 사이의 직장 경험이 있는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업무 관련 전공도서나 기술도서’를 선호하였다.¹³⁾

이러한 특성은 여성독자를 타깃으로 하는 출판계의 도서기획 및 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4. 여성 관련 도서 유형과 특성

본 연구는 여성 관련 도서 유형을 연도별로 검토한 결과 이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4.1 자기 계발 관련 도서

최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을 타깃으로 한 자기 계발 도서의 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자기 계발 관련 도서는 지난 IMF 이후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 부분을 지속적으로 차지하였다. 대표적인 자기 계발 도서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¹⁴⁾이다. 이것은 1997년 출간 당시 3만부가 판매되었고, 2002년에는 30만부가 판매된 바 있다. 이 책이 여성독자에게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이혼율과 여성의 높은 사회참여에서 기인된 것이다.¹⁵⁾ 자기 계발 도서 시장에서 여성 독자의 비중이 40%이상을 기록하였다.¹⁶⁾ 전통적으로 경영·경제·재테크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성 취향의 책으로 분류된 장르였지만 최근에는 여성독자를 타깃으로 하여 제작되고 있다.

13) 김미경(1998), 95.

14)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존 그레이 저, 김경숙 역, 동녘라이프): 본래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비유를 통해 수많은 남녀의 갈등문제에 도움을 준 책이다

15) 안선희, “한국 출판의 베스트셀러 다양성에 관한 연구-IMF 이후 10년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8), 55.

16) <<http://www.kbench.com/hardware/?no=55067>>. (검색일자, 2009.11.20).

한국 출판계는 여성의 높아진 구매력을 충분히 수용함에 따라서 20-30대 특히 직장 여성들을 겨냥한 자아개발 관련 도서 출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20대 여성의 재테크는 남다르다』,¹⁷⁾ 『여자 재테크 생활백서』¹⁸⁾ 등과 같은 경제경영 관련 재테크 도서들이 출간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은 돈, 재테크 등에 대한 관심수위를 높이게 되었다. 『여자라면 힐러리처럼』,¹⁹⁾ 『올드미스다이어리』²⁰⁾ 등과 같은 성공이나 사회적 성취 등과 관련된 도서는 여성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커리어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안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전문인으로서의 성공비법을 제시하였다. 『여자생활백서』,²¹⁾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²²⁾ 『그 남자 그 여자』,²³⁾ 『스타일북』²⁴⁾ 등과 같은 도서는 여성 스스로 멘토를 찾으라고 조언하면서, 직장 생활, 쇼핑 및 취미생활, 가족과 친구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 17) 『대한민국 20대 여성의 재테크는 남다르다』(최원정저, 한스미디어): 흥미로운 재테크 사례들을 통해 ‘쏟아내’ 절약하고 쓰는 방법을 알려준다.
- 18) 『여자 재테크 생활백서』(황숙혜저, 한국경제신문사): 대한민국 여성 재테크 달인 100여명의 재치만점 재테크 사례가 소개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테크 입문서이다.
- 19)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지성저, 다산북스): 두려움을 강한 자신감으로 바꾸는 힐러리 스타일 14가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도록 돕는다.
- 20) 『올드미스다이어리』(최수영·박혜영 외, 밀리언 하우스): KBS 일일 시트콤 『올드미스다이어리』를 토대로 하여 젊은 싱글들의 일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대여성들의 입체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
- 21) 『여자생활백서』(안은영저, 해냄출판사): 이 시대의 여성들의 연애와 결혼에서부터 직장생활과 커리어 관리, 쇼핑과 취미생활, 가족과 우정 등 여자 인생 전체를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다.
- 22)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남인숙저, 랜덤하우스코리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공한 삶을 얻기 위한 처세술 지침서다. 경제관념의 변화와 외모나 건강 등에 대한 자기관리,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상적인 결혼관의 변화 등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해 20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 23) 『그 남자 그 여자』(이미나저, 중앙M&B): 다르게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닳아가고 사랑하는 두 남녀의 마음이 그려내는 짧은 심리드라마를 담고 있다.
- 24) 『스타일북』(서은영·장윤주저, 시공사): 스타일리스트 서은영과 모델 장윤주의 스타일리시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트렌드세터인 서은영과 장윤주가 그동안 나만의 스타일을 발견하기 위해 거친 과정을 통해 ‘스타일리시하다’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으며, 구체적, 현실적인 스타일 가이드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자기 계발 도서는 젊은 여성에게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서는 독자들에게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 계발 도서는 20-30대 초반의 싱글 여성을 타겟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에게 ‘자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계발도서는 독서 인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여성독자들의 구매에 힘입어 베스트셀러 목록에 기록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기 계발 도서를 읽는 여성의 수도 늘고 있다. 최근 직장 여성들(11.4%)이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음으로써 직장생활 매너리즘을 극복한다는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²⁵⁾ 일부 직장 여성들에게 있어서 독서는 정보추구의 주요 채널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을 겨냥한 자기 계발 도서는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사회적 성취 욕구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교보문고 북 뉴스에 의하면²⁶⁾ 2009년도 경제경영, 자기 계발 도서의 매출 데이터를 보면 25-29세의 여성독자층이 가장 높은 점유율(12%)을 보였다. 이는 그 뒤를 이은 35-39세의 남자(11%), 40-44세의 남자(10%)의 점유율보다 높은 것이었다. 이처럼 여성들은 성공/처세 관련 서적의 주요 독자군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들 서적은 성공한 여성들의 자서전, 성공스토리에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남성은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 관련 영역(재테크, 금융, 경제일반, 기업실무)에 관심이 있는 반면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 대한 분야(성공/처세, 자기 능력 계발, 인간관계 등)에 큰 관심을 두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 독자를 타겟으로 하는 자기 계발 도서는 여성이 자기를 계발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필요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는 주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25) 『경향신문』, 2009년 4월 2일.

26) <http://news.kyobobook.co.kr/it_life/kimdbView.ink?sntn_id=89&expr_sttg_dy=20091217170800>. (검색일자, 2010.7.2)

4.2 자녀교육 관련 도서

2008년 현재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전국 초중고 학생)는 20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학생 1인당 평균 23만 3000원으로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0%가 넘는다.²⁷⁾ 부모의 자녀교육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교육 관련 도서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자주 오르고 있다.

자녀교육의 주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나 자녀교육 컨설팅 등을 대부분 자녀교육 관련 도서를 통하여 입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사람으로 키운다』²⁸⁾는 2006년 여성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함으로써 여성들이 자녀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교육 관련 도서로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책으로는 아이의 지능이나 성격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방송내용을 책으로 옮긴 『아이의 사생활 EBS 아이의 사생활 제작팀, 지식채널』²⁹⁾나, 자녀의 두뇌와 인성훈련법을 소개한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³⁰⁾ 등을 들 수 있다. 『책 읽는 엄마 책 먹는 아이』³¹⁾ 『준비된 엄마의 교육수첩』³²⁾도 여성에게 자녀의 독서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자녀교육

27) 『파이낸셜 뉴스』, 2009년 4월 12일.

28)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사람으로 키운다』(전혜성, 랜덤하우스코리아): 여섯 자녀 모두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졸업시킨 전혜성 박사의 자녀 교육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21세기의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리더십의 7가지 요건이 담겨 있다.

29) 『아이의 사생활』(EBS 아이의 사생활 제작팀, 지식채널):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리고 철학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 최대의 과학적인 실험 40여 회를 명쾌하게 분석하여, 인간 내부에 대한 탐구와 이해가 바탕이 된 자녀양육법을 소개한다.

30)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홍양표, 더블유출판사):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훈련하는 인성교육과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여 학습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분석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31) 『책 읽는 엄마 책 먹는 아이』(한복희, 여성신문사): 단순한 독서교육법을 넘어서서 독서지도와 부모의 교육 태도, 가치관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짚어준다.

32) 『준비된 엄마의 교육수첩』(한복희, 여성신문사): 총체적인 자녀 교육에 관한 지침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녀 교육 성공 분명한 원칙과 아이가 가진 재능을 잘 계발시켜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원칙을 제시한다.

에 성공한 부모들을 통하여 아이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계발 하는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양육원칙을 세우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자녀교육 관련 베스트셀러의 예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8년에도 영어를 못하는 엄마가 키워낸 아이의 영어 성공담을 담은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연수』³³⁾는 5월에 주간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빼빼빼빼 소아과』³⁴⁾ 『빼빼빼빼 이유식』³⁵⁾ 등과 같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교육법 관련 도서가 여성 관련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사회가 자녀교육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자녀교육 관련 도서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도서는 향후 자녀교육의 교본이자 성공전략의 길잡이로 활용되며 더 많은 여성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4.3 ‘여성문제’ 관련 도서

198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양성 평등과 관련된 다수의 도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저자의 에세이집인 이시형의 『자신 있게 사는 여성』³⁶⁾ 여성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최초의 연애소설로 알려진 이문열의 『레테

33)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연수』(이남수, 길벗이지톡) 영어 못하는 엄마가 키워낸 평범한 아이의 영어 성공기를 담은 책이다. 영어를 싫어하고 자신없어 하는 아이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엄마표 영어연수’ 비법을 전해준다.

34) 『빼빼빼빼 소아과』(하정훈, 그린비): 소아과 전문가가 알려주는 증상별 대처법을 담았다. 감기, 피부병, 소화불량, 설사 등 아이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을 중심으로 증상별 대처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소아과 의사에게만 의존하는 부모들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을 심어준다.

35) 『빼빼빼빼 이유식』(하정훈, 그린비): 이유식의 기본 원칙은 물론 각 시기별 추천 이유식, 알레르기성 유아에게 알맞은 이유식, 각 증상별 이유식, Q&A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몇 가지 밖에 조리하지 않았던 엄마들에게 이유식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6) 『자신있게 사는 여성』(이시형, 집현전): 중년여성들과 아직 결혼에 입문하지 않는 처녀들에게 꽃이 아름다운 이유, 잘 산다는 의미, 지적 도전, 나의 주인은 나다, 쉽게 삼시다, 행복의 뜰 등을 통해 당부하고 있다.

의 연가」,³⁷⁾ 젊은 여성의 자기 수양을 위한 교양서 「지적인 여성을 위하여」³⁸⁾ 등이 출간 되었다. 이들은 여성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 의식을 가지도록 독려하며 고민하도록 유도한 도서로 평가받고 있다.³⁹⁾

1990년대 한국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시도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페미니즘 열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설들이 등장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이들은 페미니즘 의식 양산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작으로는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⁴⁰⁾ 「천년의 사랑」,⁴¹⁾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⁴²⁾ 신경숙의 「깊은 숨을 쉴 때마다」,⁴³⁾이다. 이러한 소설은 여성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20대 미혼 여성에게 인기를 끌었다.⁴⁴⁾ 특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봉순이 언니」⁴⁵⁾를 통하여 가부장적 남성애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의 삶을 그려냈던 공지영은 최근 「도가니」⁴⁶⁾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심각한

37) 「레테의 연가」(이문열, 아침나라): 여자에게 있어 결혼은 하나의 레테다. 우리는 그 강물을 마심으로써 강 이편의 사랑을 잊고 강 건너의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한다.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오직 그 새로운 사랑만으로 남은 삶을 그 꿈과 기억들로 채워간다는 내용의 책.

38) 「지적인 여성을 위하여」(김형석, 안산출판사).

39) <http://www2.readersnews.com/sub_read.html?uid=16853§ion=sc1>. (검색일자, 2009.11.22)

40)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양귀자, 살림): 인간 실현을 위한 여성문제 상담소에서 일하는 강민주·강민주는 인기 절정의 영화 배우 백승하를 납치할 계획을 세운다. 남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자체를 은폐하면서 이미 남성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 폭력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천년의 사랑」(양귀자, 살림): 「원미동 사람들」의 작가가 쓴 신작 장편소설. 한국인의 밀바다 정서를 통해 흐르는 간절한 사랑을 그려냈다.

42)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공지영, 방민호 출판사): 홀로서기를 통해 스스로의 꿈과 정체성을 실현해 나가는 독립적인 삶을 이야기한다.

43) 「깊은 숨을 쉴 때마다」(신경숙, 현대문학): 제주도로 여행은 주인공은 경치좋은 바닷가의 호텔에 머문다. 같은 호텔에 투숙 하는 한 처녀와 그 처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소녀. 현실에서 멀어져온 자신의 삶을 회상한 작품이다.

44) 이진산(2001), 32.

45) 「봉순이 언니」(공지영, 방민호출판사): 60~70년대 고도 성장의 뒷골목에서 한없이 짓이겨지고 추락하면서도 삶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않는 「봉순이 언니」의 삶을 반성 어린 눈길로 감싸 안으며 그 속에서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 있다

46) 「도가니」(공지영, 창비): 광주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선과

사회문제인 성폭력을 비판적으로 다룸으로써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특히 공지영, 양귀자, 신경숙, 은희경 등과 같은 여성 작가들은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저서를 통하여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한국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20-30대의 독서 욕구가 뚜렷하게 형성된 여성을 새로운 독자층으로 구축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출판계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였다.

20-30대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소설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교보문고는 2008년 한해 동안 문화 서적 구매자 가운데 20-3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를 차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이 구매하는 도서유형이 문학서적의 인기를 좌우하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여성문제를 다루는 도서의 판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짐작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 관련 도서들이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비판적 관점에서 해부하고 여성이 당면한 고통과 억압을 성공적으로 여론화 시키는 한 여성, 특히 20-30대 여성들은 이러한 도서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4.4 인기스타 관련 도서

인기 스타의 개성과 전문성, 취향을 담아내는 도서가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도서는 가수, 배우, 모델 등 각 분야의 스타가 집필한 것으로 취미나 취향을 전문성과 접목시켜 소개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 신변잡기 등을 다루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행, 미용, 음악, 한국문화, 라이프스타일, 음식, 커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자신의 관심과 일상을 들춰내고 있다.⁴⁷⁾ 이렇게 소프트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히 여성독자

악, 진실과 거짓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의 사랑을 받고 있다.

80만부가 팔렸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⁴⁸⁾로 국제구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비야가 『그건, 사랑이었네』⁴⁹⁾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하느님, 시대, 일, 자연, 조국, 가족, 친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었다. 최강희가 만든 여행 에세이 『사소한 아이의 소소한 행복』⁵⁰⁾는 솔직한 감성으로 자신의 방을 전격 공개하는 등 일상의 사진과 함께 아이슬란드 여행을 담아내었다. 한류스타 배용준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⁵¹⁾에서 김장, 가정식, 차, 찻, 도자기, 한옥 등을 다룸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 배우 이해영이 최근 『뷰티 바이블』, 『패션바이블』⁵²⁾에서 몇 내기 노하우와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을 담아내었다. 그 외에도 재테크, 어학, 창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스타의 책이 등장하였다. 현영의 『재테크 다이어리』⁵³⁾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담은 『김희선의 해피 맘

47) <<http://www.womennews.co.kr/news/42067>>. (검색일자, 2009.11.23)

48)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야, 푸른숲): 저자가 5년간 세계긴급구호 팀장으로 활동한 보고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네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사랑과 도움을 펼치고 돌아온 저자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49) 『그건, 사랑이었네』(한비야, 푸른숲): 한비야의 숨겨진 진심이 담겨진 이 에세이는 아무리 현실이 고단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구 공통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을 펼쳐낸다. 또한 한비야는 그동안 쑥스럽고 어색해서 털어 놓지 못한 소소한 속사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털어 놓는다.

50) 『사소한 아이의 소소한 행복』(최강희, 북노마드): 트렌디하면서도 개성 있는 모습으로 마니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최강희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서울까지, 최강희의 여행과 순수, 달콤, 독특한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사차원’ 에세이가 펼쳐진다.

51)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배용준, 시드 페이지): 배용준이 한국문화에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배용준의 사진작가적 면모를 드러내는 풍경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52) 『뷰티 바이블』과 『패션바이블』(이해영, 살림라이프): 다양한 빛깔의 매력을 소유한 이해영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뷰티노하우를 소개한다.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것을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세상은 내가 바꾸어 가는 것이다”라는 그녀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3) 『재테크 다이어리』(현영, 청림출판): 이 책은 맨땅에서 시작해 푹 소리 나는 재테크 실력으로 큰 돈을 모은 만능 엔터테이너 현영의 재테크 다이어리를 공개한다. 알부자로 살고

프로젝트」⁵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기 스타가 제작한 책에 대하여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가령, ‘패션바 이블’과 같은 책은 평범한 아이টে므로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공감이 간다” 며 “스타들의 생각이나 삶을 보고 더불어 정보를 얻는 것도 흥미롭다”고 말한다.⁵⁵⁾ 이와 같이 인기스타 관련 도서는 여성독자 확대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4.5 모성 관련 도서

지난 2008년 경제위기와 함께 출판계를 강타한 키워드로 『어머니』가 떠올랐다. 이는 ‘아버지’를 키워드로 하였던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때와 대조적이다. 교보문고의 ‘2008 베스트셀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엄마의 소소한 잔소리 같은 느낌을 전하는 공지영의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 할 것이다』가 종합 3위에 랭크됐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과 해소를 다룬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⁵⁶⁾가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97년에는 김정현의 『아버지』가 2위를 기록했었다.⁵⁷⁾

어머니나 가족을 강조한 도서들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치매 증상이 있는 칠순 엄마의 실종을 계기로 가족들이 엄마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부재한 엄마의

있는 현영의 쉽고 재미난 부자 되기 노하우가 수록되어 있다

54) 『김희선의 해피 맘 프로젝트』(김희선, 엘컴퍼니)산부인과를 고르는 법, 명품 태교,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법, 임신부의 D라인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스타일링, 임신부 피부 관리하기, 출산준비 등을 소개하였다.

55) <<http://www.womennews.co.kr/news/42067>>. (검색일자, 2009.11.23)

56)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창비):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서울의 지하철 역에서 실종되면서 시작된다. 가족들이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며 기억을 복원해나가는 과정은 추리소설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전개된다. 늘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줄 것 같은 존재였던 엄마는 실종됨으로써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된다.

5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1119638&cp=nv>>. (검색일자, 2009.11.20)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쓰다듬어 줌으로써 출간된 지 석 달 만에 40만부를 훌쩍 넘기며 ‘엄마 신드롬’을 일으켰고 최단시간에 백 만부를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국민문학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특히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온가족이 ‘엄마’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드러낸다. 이 소설은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아니 홀로 서야 하는 개인의 절대고독을 다루고 있다. 그런 고독이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⁵⁸⁾ 교보문고에 의하면,⁵⁹⁾ 35세 이후 여성독자가 가장 선호한 작가는 신경숙이며 그들이 선호한 책은 자기 고발적 작품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였다.

최근 2년간 독서계를 강타한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⁶⁰⁾이나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⁶¹⁾ 등은 작가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독자에게 위안과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가족과 모성을 소재로 하는 도서들은 최근 이혼, 만혼, 저 출산 등과 같은 사회현상을 통하여 급속도로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족 문화를 재 고찰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도서들은 여성독자의 수를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58)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0908201126101&pt=nv>>. (검색일자, 2009.11.21)

59) <http://news.kyobobook.co.kr/it_life/kimdbView.ink?sntn_id=520&expr_sttg_dy=20091230100000>. (검색일자, 2010.7.2)

60) 『즐거운 나의 집』(공지영, 푸른숲): 열여덟 살 주인공 위녕은 고3이 되기 전 십대의 마지막을 자신이 낳아준 엄마와 함께 보내기 위해 아버지와 새엄마의 집을 떠난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B로 거처를 옮긴 위녕은 새로 자리 잡은 엄마의 집에서 여섯 번의 계절을 보낸다. 그러는 동안 위녕은 새로운 가족(외가 식구들과 형제)을 발견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존재(고양이 코코)와 동생 동빈 아빠의 죽음을 맞기도 한다. 무엇보다 위녕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며 엄마의 부재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간다.

61)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공지영, 오픈하우스): 작가가 10대를 지나 청년기에 들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딸 위녕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머니 공지영’은 충고나 잔소리 대신 진솔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사랑에 대해, 우정에 대해, 직업에 대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딸과 함께 독서체험을 공유하며 책을 통해 인생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다시 20대 여자 아이로 돌아가 딸과 같이 생각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를 살펴보고, 여성을 겨냥한 도서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독서층이자 도서 구매층인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화적 영향을 점검해보는 것은 독서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는 한 사회의 성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가치관 규범을 전달하는 중요한 문화전수기능을 수행한다. 특정 도서 장르의 일부 독자들의 정보의 창구이자 사회적응 및 변화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출판계의 주요 구매계층인 여성의 독서행태는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다. 즉 여성은 독서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얻고 ‘교양’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출판계는 여성독자를 주요 도서 구매층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끌어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 출판계의 여성 관련 도서 유형은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즉 자기 계발 관련 도서, 여성문제 관련 도서, 자녀교육 관련 도서, 인기스타 관련 도서, 모성 관련 도서 등이다. 요약하면, 이들 도서 장르는 여성의 성공과 자아실현에 유용한 정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취향이나 취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도서 장르는 자녀교육이나 가족 특히 모성을 부각시키는 소재를 통해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과 가족 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여성 독자를 겨냥한 도서들은 한국 사회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여성 문제를 사회문제로 여론화시킴으로써 양성평등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유형의 도서들은 여성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도서 구매층으로 자리잡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여성 관련 도서의 성공비결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즉,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도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 사회변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베스트셀러 목록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여성독자의 독서행태와 여성 관련 도서 유형과 특성을 살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독자의 독서 및 구매 욕구 관련 실증적인 조사 연구, 여성 관련 도서의 특성 관련 내용분석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호영. 『한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지출행태의 변화』.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 김기태.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서울: 이채, 1999.
- 김미경. “직장여성의 독서실태에 대한 연구-수도권 지역 20대 여성의 독서의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8.
- 박찬익. “베스트셀러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1990년대 우리나라 문예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0.
-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2008.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 안선희. “한국 출판의 베스트셀러 다양성에 관한 연구- IMF 이후 10년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8.
- 이진산.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1990년대 출판물 특성에 관한 연구-국내소설단행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원론』. 서울: 범우사, 1994.
- 『동아일보』 2009년 6월 5일.
- 『서점신문』 2009년 11월 12일

「파이낸셜뉴스」 2009년 4월 1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97738>>. (검색일자, 2009.11.20)

<<http://www.iwellcontents.com>>. (검색일자, 2009.11.20)

<http://news.kyobobook.co.kr/it_life/kimdbView.ink?sntn_id=89&expr_sttg_dy=20091217170800>. (검색일자, 2010.7.2)

<http://www2.readersnews.com/sub_read.html?uid=16853§ion=sc1>. (검색일자, 2009.11.2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1119638&cp=nv>>. (검색일자, 2009.11.20)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0908201126101&pt=nv>>. (검색일자, 2009.11.21)

<<http://www.womennews.co.kr/news/42067>>. (검색일자, 2009.11.23)

<<http://www.womennews.co.kr/news/42067>>. (검색일자, 2009.11.23)

<http://www2.readersnews.com/sub_read.html?uid=16853§ion=sc1>. (검색일자, 2009.11.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97738>>. (검색일자, 2009.11.20)

<<http://www.kbench.com/hardware/?no=55067>>. (검색일자, 2009.11.20).

<http://news.kyobobook.co.kr/it_life/kimdbView.ink?sntn_id=89&expr_sttg_dy=20091217170800>. (검색일자, 2010.7.2)

<http://news.kyobobook.co.kr/it_life/kimdbView.ink?sntn_id=520&expr_sttg_dy=20091230100000>. (검색일자, 2010.7.2)

